

## 다섯 제사에 대한 규례 (1-7장)

1-7장에서는 다섯 가지 제사에 대하여 가르치는데(1:1-6:7; 6:8-7:38), 먼저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1:2)는 말로 시작하고 둘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라”(6:9) 하는 말로 시작한다. 이렇게 두 대상을 상대로 가르치는 다섯 제사는 아래의 표로 요약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제사 규정의 순서	제사장을 위한 제사 규정의 순서
1) 번제 (1:1-17)	1) 번제 (6:8-13)
2) 소제 (2:1-16)	2) 소제 (6:14-23)
3) 화목제 (3:1-17)	3) 속죄제 (6:24-30)
4) 속죄제 (4:1-5:13)	4) 속건죄 (7:1-10)
5) 속건죄 (5:14-6:7)	5) 화목제 (7:11-36)

이러한 순서에서 두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먼저 언급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제사를 드릴 때에는 속죄제가 번제보다 먼저 드리는 예들이 나온다(레 9:2; 민 6:11 이하, 대하 29:20-30 등). 이것은 번제와 소제가 매일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이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특별한 때에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일 것이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에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는 말이 반복된다(1:9, 13, 17; 2:2, 9, 16; 3:5, 16).

둘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제사 규정에서는 화목제를 가운데 두었고, 제사장을 위한 규정에서는 화목제가 가장 뒤에 나온다. 이러한 순서는 제사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나타낸다. 백성에게 주신 규례에서는 화목제를 중간에 두어서, 제사의 핵심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데에 있음을 분명히 가르쳤다. 반면 제사장들을 위한 규정에서는 매일 드리는 번제와 소제를 기본으로 가르치고 이어서 특별한 절기에 드리는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정을 말하고, 끝으로 음식을 먹는 화목제를 맨 마지막에 두었다. 이러한 기록 방식은 제사의 실제 상황과 잘 맞는다.

## 1장 번제

번제라는 말은 ‘올라간다’는 말에서 나왔다. 즉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표현하는 제사였다. 이스라엘에서는 아침저녁으로 일 년 된 양을 번제로 드렸다(출 29:38-41). 번제에는 속죄의 뜻도 포함되지만 또한 전체를 태워서 드리는 번제에서는 감사의 뜻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번제에 사용하는 제물은 들에서 잡은 것이 아니고 집에서 키운 것이었다. 따라서 상당한 비용이 들었지만 제사를 드리는 자는 그것을 즐겁게 감당하였다. 물론 가난한 자도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번제에 참여할 수 있었고, 그 효과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동일하였다. 수송아지와 비둘기의 경제적 차이는 매우 컸지만 번제에서는 동일한 효력을 나타내었던 것이다.

### 1. 번제의 규례 (1:1-2)

레위기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는 이야기로 시작한다. 회막은 ‘만남의 장막’이라는 의미로 성막의 다른 이름이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에 회막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신 적이 있었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만남의 장막’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려고 모세를 부르신다.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이제는 성막에서 모세를 통하여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신다.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길을 알려 주시는데, 그 일은 제사장만의 일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일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아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1:2) 하시면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제사장만의 일이 아니라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이었음을 나타낸다. 그들은 들에서 잡은 짐승이

아니라 집에서 키운 짐승 중에서 흠이 없는 것을 여호와께 드려야 하였다.

‘예물(코르반)로 ‘드린다(카라브)고 하여, ‘가까이 오다’는 뜻의 ‘코르반’과 ‘카라브’라는 동족 단어를 두 번씩, 모두 네 번 사용하였다(“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곧 소떼나 양떼에서 너희 예물을 드려라”). 예물은 여호와께 나아와서 드리는 것이고,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임을 강조하려고 동족 단어를 네 번이나 사용한 것이다.

## 2. 소의 번제 (1:3-9)

소를 번제로 드릴 때에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드려야 하였다. 제사를 드리는 과정을 자세히 알려 주셨는데 ‘제사자’와 ‘제사장’이 함께 번제를 드리는 일에 참여하였다. 제사자는 무흠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보였대(참조. 말 1:7, 13). 그는 자기가 가져온 그 짐승에게 안수한 다음에 직접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찢는 궂은일을 하였고(1:4-6, 9), 제사장은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단의 사면에 뿌려서 속죄하는 일과 제물을 단 위에서 태우는 일을 하였다. 제사의 핵심인 피로 속죄의 일을 하는 것은 제사장의 책무에 속하였지만, 제사의 과정에서는 백성이 수동적이지 않고 선택한 제물에 안수하고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번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졌다.

1) 번제자: 안수와 도살

제사장: 피를 쏟음

2) 번제자: 가죽을 벗기고 고기의 각을 뜸

제사장: 제단에 불을 피우고 장작을 배열함, 그 위에 각 뜬 고기, 기름 부위를 배열함

3) 안수자: 내장과 다리 씻기

제사장: 전부를 번제로 드리기

제물을 드리기 전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제물에 안수하였다(1:4). 안수는 드리는 자의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되는 것을 나타낸다. 안수가 죄의 전가를 나타낸다는 것은 속죄일에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하며 그들의 죄를 고하여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둔 후에 그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것에서 매우 분명하게 나타냈다(16:21-22).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그 제사가 하나님께 열납되어 그의 깃털이 치러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여기에서 번제의 목적도 ‘속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자기 대신에 짐승이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더 깨달았을 것이고, 그렇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열납하셨다. 이러한 제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시 51:16-17).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속죄’가 첫째로 요구되었고, 여호와께서 번제를 열납하시는 것도 ‘속죄’를 위한 것이었다(1:4).

둘째, 번제에서 안수하는 것은 또한 동물을 다 드리는 것처럼 자신을 전체로 드린다는 사실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생각하면서 철저한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면서 제사를 드렸다. 번제로 드리는 동물이 연기가 되어서 올라가는 것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죄를 받은 사람의 마땅한 정서이다.

가죽은 ‘벗겼다.’ 이것은 털과 가죽을 태울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영적 해석이다.

### <참고>

‘화제’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잇세’인데 이 말이 ‘에쉬’(불)에서 유래하였다고 생각하여 ‘화제’(火祭)로 번역하였다. 그런데 이 단어가 ‘식물/땡’이라는 말로 보충되기도 하고(3:11, 16; 21:6, 21) 포도주나 기름으로 드리는 제사에도 사용되었기 때문에(10:15; 23:13) 화제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음식 제사’로 번역하는 것이 낫다. 개역의 ‘화제’는 ‘음식 제사’로 바꾸어서 읽으면 성경의 내용을 더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

### 3. 양과 염소의 번제 (1:10-13)

양과 염소를 번제단의 북쪽에서 잡았다. 소를 도살할 때에는 여호와 앞이라고 하였는데 아마 번제단과 입구 사이일 것이다. 소를 잡는 곳과 양과 염소를 잡는 곳을 공간적으로도 구분하였다.

### 4. 새의 번제 (1:14-17)

새를 번제로 드릴 때에는 비둘기를 드리되 암수의 구별에 대한 언급이 없다. 가난한 사람이라도 모두 자기를 주님께 드리면서 살게 하신 것이다.

새는 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소나 양처럼 단의 사면에 뿌릴 수 없고 단 곁에서 피를 흘리게 하였다. 그리고 멍통과 그 더러운 것을 제거하여 번제단의 동편에 있는 재 버리는 곳에 버렸다. 새는 너무 작기 때문에 각을 뜨지 않고 날갯죽지를 찢어서 번제물로 드렸다.

#### 묵상과 실천:

#### 여호와께 나아오고 드리는 삶

레위기는 어렵게 느껴진다. 처음부터 제사 제도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나오면서 그 내용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레위기서의 의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길을 가르쳐 주는 책이지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책이 아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여호와와 영광이 가득한 성막에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였는데 그 다음 장인 레위기 1장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1:2)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면서 나아올 수 있다고 하였다. 앞에서 생각한 것처럼, '예물'(코르반)로 '드린다'(카라브)고 하여 여호와께 나아오는 것을 강조하였다. '가까이 오다'는 뜻의 '코르반'과 '카라브'라는 동족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도록 인상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다.

번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소의 번제를 드리는 것이 가장 자세히 나오고 이어서 염소/양, 그리고 비둘기로 드리는 번제를 이야기하였다. 세 가지의 번제가 있으나 효과는 모두 동일하였다. 비둘기의 번제를 드린 사람이 소의 번제를 드린 사람보다 주님께 덜 열납되는 일은 없다. 세 가지 경우에 모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고 여호와께서 열납하셨다(1:9, 13, 17). 번제의 연기가 하늘에 올라가는데, 그것은 자기를 온전히 드린 자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기쁘게 받아 주심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일이다.

하나님께 정결하고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것이 그 핵심이다.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이 있으나 여호와께서 쓰시는 것은 정결한 그릇이다(딤후 2:20-21).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서 불의에서 떠나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여호와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를 정결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침송에게 안수하면서 드리면, 여호와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받아 주신다. 우리에게는 온전한 제사장이 온전한 제물을 온전한 성전에서 드리신 그리스도가 있다. 그분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우리는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의 집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주님께서 정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제사 제도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비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가난한 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주님께 나아올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다.

#### 1장 익힘 문제

1.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규례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어디에서 말씀하셨습니까? (1절)

2.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한 규례를 주신 대상은 누구입니까? (2절)
3. 번제로 드리는 짐승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5, 10, 14절)
4. 번제의 예물을 소로 드릴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 1) 어떤 것을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3절)
  - 2) 어디에서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3절)
5. 1) 번제물에 안수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그 효과는 무엇입니까? (4절)
  - 2)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5-6절)
  - 3)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9절)
6. 번제로 드리는 동물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3, 10, 14절)
7. 제단 위에서 예물을 분살라 드리는 번제를 여호와께서는 어떤 것으로 여기시며 받으십니까? (9, 13, 17절)